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과 한국 기독교

교수칼럼



송재룡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문명을 전대미문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0세기 이후 승승장구해 온 의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여기저기서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한계와 더 나아가 그 종언의 불가피성에 대한 언설들도 난무하고 있다. 인류 문명의 한계에 대한 위기의식은 당연히 종교의 영역과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한계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야기하는 삶의 고통과 불안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그 실존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거나 초월하게 해주는 종교적 위안의 차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지속이 전반적인 탈종교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전의 일면 만을 보는 것이 된다. 오히려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작금의 실존적 위기와 불안의 상황이 자신들의 신을 위한 변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고전적 경구의 교훈을 통해 현대의 계몽적 시민들은 박탈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보상이나 위안에 종속되는 경지를 넘어섰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탈-보상 이론의 현대적 함의는 넓다. 종교적 행위의 동기는 천박한 수준의 박탈-보상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정치·경제·사회적 목적 달성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적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에서 다루는 ‘다차원적 종교성이론’은 현대 사회의 종교적 신앙 행태의 동기와 양태가 왜 그렇게 다양한지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종교적 요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앙 행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반적인 탈종교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전의 일면 만을 보는 셈이다. (사진=unsplash)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앞서 얘기한 다차원적 종교성 이론이 말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는 다원주의적 신앙 이해를 품는 ‘인정의 정치’를 거스른다는 점이다.”

행태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인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거나 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특정 종교인들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 세간의 비난들이 갖는 문제점을 의식하게 한다. 이 글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세간의 비난의 초점이 그 종교인들의 탈시민적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가치 지향, 교리, 경전해석, 예배 및 회중 행태 등에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비난의 대부분은 불교와 같은 타종교 진영에서가 아닌 같은 기독교 진영 특히 진보주의적 개신교 진영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월 대구지역의 집단 감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신흥종교 집단인 신천지교회와 8.15일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집단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사랑제일교회는 모두 그 신앙적 가치 지향이 보수·복음주의적이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열성적인 신앙 행태, 곧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중 모임에 참석하는 행태는 이와 같은 복음주의적 가치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천지교회와 같은 신흥종교 집단들의 신앙 행태는 광적일 정도의 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곳 신도들이 일반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다양하게 예배나 회중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 참석에 열성적일수록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기복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행태는 예컨대 ‘새벽예배’라는 한국 기독교 특유의 제의를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기독교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세 가지의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특성들은 전술한 복음주의적 개신교의 신앙 행태를 구성하고 진작시켜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기독교 경전의 이해가 쉽다는 점이다. 둘째는 타종교에 비해 개신교의 제의와 예배는 준수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특성과 연합된 것으로 개신교의 신앙 행위는 일상화의 수준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기독교의 차별적 특성은 원초적이며, 한국 보수·복음주의 개신교의 신앙 행태의

양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차원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샤머니즘적 기복주의 성향과 같은 종교문화적 요인도 깊게 배어들었다. 이 이해는 적어도 왜 사랑제일교회나 신천지교회와 같은 한국 개신교의 일부 교회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정부의 지침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오프라인 방식의 다중적인 예배와 회중 모임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알게 한다.

오히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앞서 얘기한 다차원적 종교성이론이 말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는 다원주의적 신앙 이해를 품는 ‘인정의 정치’를 거스른다는 점이다. 이들의 비판 논리대로라면 수백만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아직도 주술이라는 마법의 정원에 거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른바 진보주의적 개신교 범주에 속하는 서울시내 교회의 교인인 필자는 종종 높은 지력과 날카로운 성서비평으로 중무장한 이 시대의 진보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질문해 본다. 그들의 차별적 과시의 칼날 앞에 그 누가 맞서리? 예수마저 스러지리라!